

광주 '무늬만 자전거도로'

광주지역 자전거도로는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단절구간이 많은데 노면이 고르지 않은 등 대부분이 사후관리 부실로 자전거를 타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광주지역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인 418km를 조사한 결과 노면이 파손돼 노면정비(재포장·부분보수 등)가 필요한 곳이 92곳, 자전거도로를 잇는 보도의 턱이 높아 타기 힘든 단절구간이 197곳이나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차량진입을 막고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블라다' (차량진입방지봉)를 제거하거나 신설·보수해야 할 곳도 101곳, 노상 적치물로 인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돼야 할 곳도 157

■ 시·구청 418km 전 구간 조사
노면파손 92곳·단절구간 197곳
관리 부실... "자전거 타기 부적합"

곳,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62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신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노면 정비, 보도턱 낮추기, 블라다 정비, 자전거 보관대 신설, 노상 적치물 제거 등이 필요한 지점을 시와 각 구청, 용역업체, 빛고을바이크사업단이 참여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동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보도턱, 서구는 블라다, 남구 관내 노면 불량, 광산 자전거 보관대 부족, 북구는 자전거 표지판 부족 및 노상적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전거도로 부실은 각 구

청이 지난 95년부터 정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설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가한 빛고을 바이크단 관계자는 "상당수 자전거도로가 보도 공간을 빼앗아 그 옆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노상 적치물은 물론 공공기관의 시설물도 주행을 방해가 되며, 특히 단절구간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평가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뒤 처음이

■ 광주 자전거도로 점검결과

점검항목	개·부수	필요 지점
노면정비(재포장·부분보수 등)	92곳	
보도 간 단절구간	197곳	
블라다 설치·제거·보수	101곳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157곳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	62곳	

※광주시·구청·빛고을 바이크사업단 합동 점검(3.27~4.10)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 고춧가루 7t 국산 둔갑 유통

전남농관원 10명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모(44·순천시)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또 다른 김모(46·광주시 서구 양동 E식품)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E식품 대표 김씨의 경우 가위초와 막초 등 질이 낮은 국산고추에 중국산 건조고추 30%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고춧가루를 광주·전남 걸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유명 김치 생산업체 등에 6천940kg이나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순천시 지역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또는 중국산과 국산 건조고추를 혼합·가공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정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자들이 부정 유통한 고춧가루 물량은 3만7천444kg(시가 3억4천만원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1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여수 계란농장 항생제 검출

여수의 산간계 농장에서 항생제로 사용하는 위반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남도가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달 도내 44개 농가에 대한 검사한 결과 여수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엔노플록사신 1.11ppm(잔류허용기준 0ppm)를 검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금은방 강도 '프로파일링' 분석

"범인은 동종 전과자"

"재범 가능성 높다"

광주에서 '금은방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경찰은 보상금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강도사건을 '프로파일링'(Profiling·범죄행동심리) 기법으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경찰청 등 국내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심리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이 치밀한 사전단사를 한 뒤 범행에 나선 동종전과자일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선 용의자들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용의자들이 범행 당시 20여분간 느긋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금고 위치나 경찰 순찰 시간, 도주로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은방 영업시간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점과 피해자 3명을 단숨에 제압한 뒤 양손을 결박한 점, 실탄

세 발을 쓰는데도 도주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한 점으로 미루 동종전과자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분석한 광주지방경찰청 범죄분석 담당자는 "범인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파일러들은 용의자들이 내부 구조와 영업 형태 등을 매우 잘 아는 과거 금은방 주인이나 종업원, 세공업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은방에 모조품이 아닌 진품의 귀금속이 진열돼 있다는 사실을 안 점과 경보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피해자를 끌어난 점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김병준 교수는 "이들은 순찰시간 등 경찰의 행동반경을 사전에 잘 파악했을 것"이라며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흉탄 귀금속을 녹여 유통할 수도 있으며, 추가범행 가능성도 크다"고 행각을 벌인 점과 피해자 3명을 단숨에 제압한 뒤 양손을 결박한 점, 실탄

조난 등대지기 산악구조대가 구조

○한 30대 등대지기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아오다 조난됐으나 산악구조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무사히 구조됐고.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등대원 주모(36)씨가 전날 밤 8시경 신안군 흑산면 독실산의 등대 구경을 온 관광객 3명을 5km가량 떨어진 민박집까지 안내하고 되돌아간 중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고 조난.

○목포항만청은 주씨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으며, 목포경찰서 거제도 산악구조대원 20여 명이 출동 1시간 만에 절벽 바위 밑에서 쫓고리고 앉아있던 주씨를 구조.

○주씨는 "평소 잘 다니지 않는 지름길로 돌아오던 중 길을 잃었는데 경찰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낭패를 면했다"며 안도의 한숨.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공무원 시험 준비 20대 여 낙방 비관 자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잇따라 시험에 떨어진 것에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C대학교병원에서 J(여·24)씨가 뇌사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J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J씨는 서울 모 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응시했다 낙방하자 교사 임용고시 준비를 해왔으며, 임용시험에 떨어진 뒤 심각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씨의 아버지는 "딸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며 J씨의 각막을 광주C대학교 병원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J씨가 공무원시험 준비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빨리 선임하라”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0일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정이사

"천은사 관람료 징수 부당한 행위 아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로 통행인들의 반발을 사온 지리산 천은사의 관람료 징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천은

사 측이 사찰과 떨어진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시인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천은사 측이 통행자들 가운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람료를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은사는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 차를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성인 1천600원)를 징수해 운전자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권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골목길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순천	대1138,2119	111억	82억	신속요양병원
목포	대82,21147	4억3천	3억	원룸20여대
오지동	대281,2321	794천	235천	2층 공방
농성동	대187,2188	2825천	1594천	7층 빌딩
내포동	대185,2338	1225천	7억	신속4동
문안동	대238,2765	2695천	159억	8층 빌딩
성안동	대137,2501	1925천	1094천	5층 유통센터
월산동	대124,2371	1098천	398천	5층 빌딩
소촌동	대802,21387	8495천	29억	7층점점
신안동	대88,21285	896천	395천	4층 건물
노안동	대683,2203	597천	392천	주유소,가든
오지동	대131,21189	491천	293천	2층 공방
신안동	대127,2191	894	529천	원룸120대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성동	대아파트	32	20/1	192천
안동	대아파트	20	17/8	6천
학동	대아파트	59	15/9	297천
주월동	대아파트	44	20/13	193천
창성동	대아파트	32	19/17	193천
주월동	대아파트	39	15/6	193천
안동	대아파트	32	15/1	193천
차량동	대아파트	33	20/16	193천
봉성동	대아파트	32	20/9	193천
도산동	대아파트	24	13/10	5천
진월동	대아파트	32	12/1	193천
정양동	대아파트	49	16/1	193천
동원동	대아파트	32	20/6	7천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안동	대아파트	295천	193천	4층점점
문안동	대아파트	191천	6천	2층점점
화산동	대아파트	2225천	1225천	5층점점
김호동	대아파트	597천	4억	3층고층
차량동	대아파트	193천	9천	2층점점
중흥동	대아파트	394천	294천	4층점점
문안동	대아파트	194천	394천	3층점점
산수동	대아파트	393천	293천	3층점점
월산동	대아파트	1098천	398천	5층점점
소촌동	대아파트	8495천	29억	7층점점
빙밀동	대아파트	999천	499천	4층점점
안동	대아파트	797천	493천	5층점점
월산동	대아파트	193천	193천	3층점점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국성동	대아파트	18,230	4895천	1층점점
안동	대아파트	4,236	1억	4층점점
신안동	대아파트	70,241	192천	5천점점
백전동	대아파트	34,235	6895천	2층점점
월산동	대아파트	40,233	193천	6천점점
용문동	대아파트	34,240	925천	3천점점
백전동	대아파트	45,242	825천	4천점점
영광동	대아파트	12,265	195천	4천점점
삼계동	대아파트	46,287	1억	5천점점
국성동	대아파트	105,295	682천	2천점점
농성동	대아파트	40,242	197천	6천
백전동	대아파트	38,221	681천	4천점점
오지동	대아파트	48,248	191천	6천점점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문안동	대아파트	282	898천	391천
문수동	대아파트	263,2185	1196천	591천
오지동	대아파트	470,2129	2억	5천7천
대산동	대아파트	478,2113	2693천	1894천
백전동	대아파트	48	794천	393천
용문동	대아파트	239	193천	5천9천
용문동	대아파트	400,2265	997천	594천
오지동	대아파트	124	2630	1180
백전동	대아파트	424,2211	594천	394천
오지동	대아파트	470,2129	2억	5천7천
대산동	대아파트	478,2113	2693천	1894천
백전동	대아파트	48	794천	393천
오지동	대아파트	124	2630	1180

평등신당공공임대 [공공 사무실 180㎡] 감평가 48억 최저가 29억 분할 임대 가능 임대료 010-7888-4320

용문동 대536㎡, 21308㎡ 감평가 48억 최저가 29억 분할 임대 가능 임대료 010-7888-4320

문안동 대138㎡, 21968㎡ 감평가 111억 최저가 62억 신축요양병원 임대료 010-7888-7825

소촌동 대802㎡, 21387㎡ 감평가 64958천 최저가 29억 미분할 임대 가능 임대료 010-7888-7825

같이 일 하십 분 -공인 중개사 지역 소비자 또는 판매원 업무능력 -부동산, 경제 경력자 우대 -30대 남, 녀 3명 모집 -입사지원 236-3400

대호온돌침대/가사갤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특가판매

광주신세계 지하1층에서 만나십시오!

돌침대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돌침대-대호온돌나라!!
부모님 호도선물로 최고입니다.

두한족월 최대란?
"여러를 위해 최고 명품"을 약속하는 대호온돌의 명품 돌침대입니다. 대호온돌의 명품 돌침대는 대호온돌의 명품 돌침대입니다. 대호온돌의 명품 돌침대는 대호온돌의 명품 돌침대입니다.

신세계대점: 062-360-1902
본사: 031-768-3259
www.ondolnara.co.kr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6번지